

발전5사 ‘한국발전’으로 재편… 석유·가스·항만공사 단일화

25년 만에 발전 공기업 한 법인으로 R&D·재생에너지 투자기능 일원화
자원개발·수급 묶어 해외 협상력 강화
4개 항만기관 합치고 석탄공사 청산
고용승계에도 노조 반발 등 변수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해당하는 109개 기관을 감축하고 핵심 역량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는 대대적인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나선다. 과거 경쟁 도입을 위해 분할됐던 거대 인프라 기관들을 다시 묶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유사·중복 기능 정비와 부실 기관 청산을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번 구조개혁을 통해 줄어드는 공공기관은 전체의 약 20%인 109개다. 부문별로는 전략적 구조개혁을 통해 15개,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로 11개, 자회사 및 소규모 기관 통합을 통해 83개가 각각 정비된다.

◆ 25년 만에 뭉치는 발전 5사… 석유·가스공사도 합쳐 ‘글로벌 경쟁력’ 확보
우선 에너지 분야에서는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나뉘어 운영되던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사가 25년 만에 (가칭) 한국발전이라는 단일 법인으로 재통합된다. 그동안 발전사별로



정부가 행정, 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발표한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모습. 정부는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을 우선적으로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차질없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과 검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의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뉴시스

연간 500억 원의 R&D 비용과 2,000억 원의 재생에너지 건설사업을 각각 분산 투자해 오던 비효율을 해소하고, 재무구조를 일원화해 투자 여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통합 법인 본부에는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를 전담하는 ‘재생에너지본부’와 석탄발전 폐지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본부’가 신설된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역시 하나로 합쳐진다.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글로벌 공급

망 위기에 대응해 해외 자원 탐사·비축 및 가스 수급 기능을 단일 기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국제 자원 시장에서의 협상력을 높이기로 했다.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등 석유 유통구조 개선 기능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된다.

반면, 모든 광업소가 문을 닫은 대한석탄공사는 청산 절차를 밟는다. 지난해 말 기준 2조 5,900억 원의 부채를 떠안고 영업활동 없이 연간 750억 원 이상의 이자비용만 발생하던 석탄공사는 부채 청산 재원을 마련한 뒤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 조속히 폐지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소모적 경쟁을 벌이던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는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돼 4개 지역지사 체제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정책·기획 기능을 통합하고 해외 거점 공동 조성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한다.

◆ “밀실·줄속 추진” 노동계 격렬 반발… 고용 승계·본사 위치 두고 파행 우려도
정부는 대규모 통폐합에 따른 내부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원을 제외한 일반 직원의 고용 승계를 100% 보장하고, 통폐합 전후 보수나 복리후생의 불이익이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경영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3일 공공운수노조와 금융노조 등 노동계는 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제한 “속도전·밀실·줄속 행정”이라며 강도 높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정부에 즉각적인 구조개혁 중단과 실질적인 노정 협의 및 공론화 절차를 촉구했으며, 일부 금융노조는 총파업 연대 가능성까지 내비쳐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통합 기관의 본사 소재지를 둘러싼 지역 지자체 간 주도권 싸움과 석유공사·가스공사의 막대한 부채 승계 문제 등 구조적 난제가 얹혀 있어, 향후 국회 법 개정 과정에서 거센 진통과 파행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본격화 내년부터 수도권 기관 옮긴다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세종 이전
민간건물 임차 ‘선도 이전’ 적극 활용
기관별 분산 대신 지역별 집적 배치
주택·교육·원거리 이주지원 확대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2차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주요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시작으로, 수도권에 남아 있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속한이전을 위해 청사신축에 드는 물리적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하는 ‘선도 이전’ 방식을 적극 도입한다. 이를 통해 청사 건립이 전이라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을 시작해 정책 실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2차 이전에서는 과거와 같은 기관별 ‘단독 분산’ 방식을 지양한다. 대신 지역별 특화 산업 및 기존 혁신도시와의 연계성을 다각도로 고려한 ‘집적·집중 배치’ 원칙을 적용한다. 아울러 이전 기관 임직원들의 원활한 안착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 주택 공급, 자녀 교육 지원, 원거리 이주 지원책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및 지원 방안을 크게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 “수도권 과밀화 차단 및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정부가 이 같은 이전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은 1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이후에도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잔류 기관을 최소화하고 국토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는 국정 과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대규모 이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기대한다. 공공기관 이전은 예산 집행, 신규 인재 채용, 임직원 가구 이주 등을 동반해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청년층 인구 유출을 막는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전 기관이 지역 대학·연구기관·기업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앵커 기관 역할)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신산업 생태계가 크게 확장될 수 있다. 행정 및 공공 기능이 지방 거점으로 연계·확산됨에 따라, 수도권에 집중된 국토 구조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주요 금융 및 공공기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업무 효율성 저하, 금융 경쟁력 약화, 정주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노사 갈등과 정국 난항이 예상된다.

‘선택과 집중’에 따른 거점 배치가 추진되면서, 알짜 기관을 유치하려는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이 우려된다. 기관 유치에 실패한 지역과의 격차 확대 문제나 지역 간 이해관계 충돌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높다.

공공기관 1차 이전 당시 드러났듯, 직원 혼자만 이주하고 가족은 수도권에 남는 ‘나홀로 이주’나 주말마다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반복될 경우, 지역 내 실질적인 인구 정착 및 정주 여건 개선 효과가 대폭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한용수 기자



평화 혹은 붕괴, 지구행성사회의 문명 미학을 향해

Peace or Collapse - Aesthetic Pathway to Planetary Civilization

우주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평화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전쟁이 없었다면 파멸의 절구가 없었을 삶.
기후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지속되었을 생명.
인류의 시작엔 이유가 없으나 종말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구와 우주는 인간의 모든 발자취를 기억합니다.

과학기술이 앞서가도 인간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면,
문명은 스스로 미래를 잃게 됩니다.

평화는 못 생명을 위해 피는 꽃입니다.
서로 다른 존재의 차이를 지우지 않고 조화의 결을 빚어내는 '문화 세계'.
지구행성사회의 문명 미학입니다.

지식과 상상이 문명사적 공동번영을 위한 의식이 되고,
깊은 평화의 우주를 펼치는 '학문과 평화의 여정'.
경희가 열어갈 미래 시민의 길입니다.

1981년, 경희가 제안한 '세계평화의 날'과 '해'는 유엔 제36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세계평화의 해는 1986년이었고, 세계평화의날은 매년 9월 21일에 기념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유산은 2026년 최석호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계평화의 날 결의안(SR 113)'이 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며 오늘의 평화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

접수기간 : 2026. 9. 8(화) 10:00 ~ 11(금) 18:00
입학정보 : iphak.khu.ac.kr 입학상담 : 1544-2828
원서접수 : www.uwayapply.com

경희사이버대학교

2027학년도 1학기 학생모집

학 부 접수기간(예정) : 2026. 12. 1(화)~ 입학상담 : 02)959-0000
원서접수 : go.khcu.ac.kr
대학원 접수기간(예정) : 2026. 11. 16(월)~ 입학상담 : 02)3299-8808
원서접수 : grad.khcu.ac.kr